

# 도내 지역건설 상생협력 강화

### 전개공, 건협 전북도회와 간담회 열고 현장 의견수렴 올해 사업계획 설명·지역 건설산업 발전 방안 논의 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적정 공사비 반영 등 제기돼

전북개발공사가 도내 건설업체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전북개발공사는 16일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함께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건설업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북개발공사의 주요 추진 성과와 2026년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건설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

려움과 건설산업 발전 방안 등에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전북 건설업체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북개발공사는 16일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함께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대근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도내 건설업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상생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전략적 파트너십 | 국민연금,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와 협약 전 자산군 아우르는 전사 차원 파트너십 첫 사례

국민연금공단이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전 자산군을 포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며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3일 전북 혁신도시 공단 본부에서 글로벌 자산운용사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와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민연금이 기존에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개별 자산군 단위로 진행해 온 협력을 넘어 전 자산군을 아우르는 전사 차원의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식화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는 1998년 설립된 글로벌 종합 자산운용사로 주식과 채권, 멀티에셋, 사모시장 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약 6,940억 달러(약 999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21개 이상의 사무소에서 700명 이상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투자자산은 2006년부터 위탁 운용해 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토비아스 프로스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전 자산군을 포괄하는 투자 관련 지식과 운용 경험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글로벌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 운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 인재 교류 등 다양한 협력 프로



전북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김성주 공단 이사장과 토비아스 프로스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그램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전략적 제휴는 함께 성장하겠다는 협력 심의”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주를 글로벌 자산운용 네트워크와 직접 연결하는 살아있는 다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토비아스 프로스 CEO는 “이번 파트

너십의 핵심은 장기적 협력 관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이라며 “투자 관련 공동 연구와 지식 교류는 물론 교육과 연수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투자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식 이후 전주시 민성동에서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 전주

사무소 개소식도 진행됐다. 전주사무소는 양 기관 간 상시 소통과 실무 협력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하며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전략적 교류 확대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전담 상주 인력으로 전북 지역 인재 채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 지역 기업 밀착 지원... 전북TP, 남원서 시군구연구고산업육성 설명회

전북테크노파크가 남원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기업 지원에 나섰다.

전북테크노파크는 16일 남원시비이오산업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남원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시군구연구고산업육성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유관 사업을 함께 소개하는 통합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시군구연구고산업육성사업을 비롯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대응 체계 구축사업, 전북 선도기업 육성사업, 혁신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또한 도내 기업의 기술 애로 해소와 기술 매칭·기술 이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형 ILP 서비스 설명회도 함께 열려 기업들이 필요한 지원 정책을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16일 남원시비이오산업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남원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시군구연구고산업육성사업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남원시 특화 지원 프로그램은 고부가가치화 컨설팅,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 리뉴얼 지원, 시험 분석 지원, 인증 획득 지원,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마케팅 지원, 기술 컨설팅, 맞춤형 생산업체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부처 협업 프로젝트다. /오상근 기자

한편 이번 설명회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사업 모집 공고에 맞춰 마련됐다. 시군구연구고산업육성사업은 순창과 김제, 장수, 남원 등 인구 감소 지역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부처 협업 프로젝트다. /오상근 기자

## 탄소산업진흥원, 탄소소재·부품 품질 신뢰성 강화 지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탄소소재·부품 산업의 품질 신뢰성 확보와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표준시험법 개발 지원에 나선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2026년도 탄소제품 인증 표준시험법 개발 지원사업 신규 과제를 공모하고 23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카본블랙,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 6대 탄소소재를 활용한 제품의 품질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오상근 기자

## “다양한 농촌자원으로 창업에 도전해 보세요”

### 농식품부, 내달 10일까지 농촌창업 경진 농촌 에메니티 창업 분야 참가자 공모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창업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유·무형 자원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이끌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6년 농촌창업 경진대회’ 농촌 에메니티 창업 분야 참가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농촌창업 경진대회는 농촌 자원을 활용한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해 성장을 지원하고 농촌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개최돼 11개 우수 창업기업이 선정됐다.

지난해 대회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농촌 체험형 관광 콘텐츠 기획·운영 등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창업 사례가 발굴됐다. 실제로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 소재를 개발한 기업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 기업 등은 매출 증가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회는 규모를 확대해 농촌

에메니티 창업 분야와 로컬푸드 창업 분야로 나눠 운영된다. 농촌 에메니티 창업 분야에서는 10개 팀 이내를 선발하며, 로컬푸드 분야에서는 5개 팀 이내를 별도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팀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되며, 민간기업과 연계한 선도기업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 및 콘텐츠 기획·개발, 브랜딩 등 맞춤형 보육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최대 1억 원 규모의 사업과 자금 지원도 추진될 예정이다.

농촌 에메니티 창업 분야는 농촌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모형을 보유한 업력 7년 미만 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16일 오전 9시부터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농촌융복합산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와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최종 10개 팀이 선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중 농촌 지역 농산물 활용 식품·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창업 분야 공모도 진행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 중동 사태 수출 중소기업에 물류비 105억원 바우처 지원

### 중기부, 물류비 부담 급증 따라... 20일부터 신청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고조로 물류비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주요 물류 거점의 운항 차질로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지정위험 환율료 등 부대비용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부는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05억원 규모의 물류 바우처를 긴급 편성하고 오는 3월 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중동 지역에 수출 중이거나 수출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50만 원을 지원하며, 정부 보조율은 70%다. 특히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기존 지원 항목에 지정위험 환율료, 항만 폐쇄에 따른 물류 반송 비용, 현지 발생 지체료,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등 물류 관련 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2026년 1차 수출바우처에 선정된 기업도 중동 수출 실적이 확인될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활용 범위를 넓혔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수출 실적과 피해 증빙 자료만 제출하면 신청 후 3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확정하는 신속 심사 제도가 적용된다.

사업 신청은 20일부터 수출바우처 전용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출바우처 민원안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 도내 청년 구직자 취업 준비 부담 줄인다

### 전북경진원, NCS·인적성 강의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청년 구직자의 취업 준비 부담을 줄이고 도내 기업·기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NCS·인적성 강의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과 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필기, 인적성 검사, PSAT 등 필기시험 대비 온라인 강의와 교재를 지원해 체계적인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도내 우수 기업과 기관으로의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진원 관계자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도내 청년 구직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집 기간은 16일부터 선착순 100명으로 마감 시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